

Porcelain Laminate Veneer를 이용한 전치부 심미 수복 증례

곽재호 *, 김만용, 김세웅
(가천의과대학교 부속 중앙 길병원 치과보철과)

최근에 환자들의 심미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All ceramic을 이용한 다양한 수복이 등장하였다.

Porcelain laminate veneer는 치아의 순면에 도재의 shell을 접착해서 심미성을 회복하는 기법으로 정의되는데 그 기원은 1928년에 헐리우드의 개업의 Pincus가 영화배우의 전치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platinum matrix위에서 소성한 도재의 shell을 의치접착제로 붙였던 헐리우드의 bridge에서 시작했다.

Porcelain laminate veneer가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3년으로 Horn이 platinum matrix위에서 도재를 소성한 기법을 소개한 것으로, veneer의 내면을 염산으로 에칭하고 silane coupling agent로 처리한 후 광중합 레진 시멘트로 접착시키는 기법이 Pincus의 기법보다 진보하고 있다.

Porcelain laminate veneer의 장점으로는 자연치 형태 및 질감의 재현, 보존적인 치아 삭제량, 내마모성, 연조직과의 생체 친화성, 열팽창계수가 법랑질과 유사하다는 점이며, 단점에는 파절의 가능성, 수리가 어렵고, 시적단계를 거치는 것이 어렵고, 과퐁용되기 쉽다는 점이다.

적응증에는 과도한 치간 이개, 치관 파절, 치아 형태이상, 심한 변색치의 치료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금기증으로는 법랑질이 부족한 경우, 실활치, 이갈이 같은 이상습관등이 있다.

이번에 보고하는 증례는 상악 중절치 사이에 diastema가 있는 경우, 변색된 경우, 상악 전치부에 전반적인 space가 있는 경우에서 교정치료로 space를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laminate를 이용하여 보철적으로 수복하여 비교적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